Eugene's FICC Update
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RA 이준영_ 02)368-6136_ lee.jy@eugenefn.co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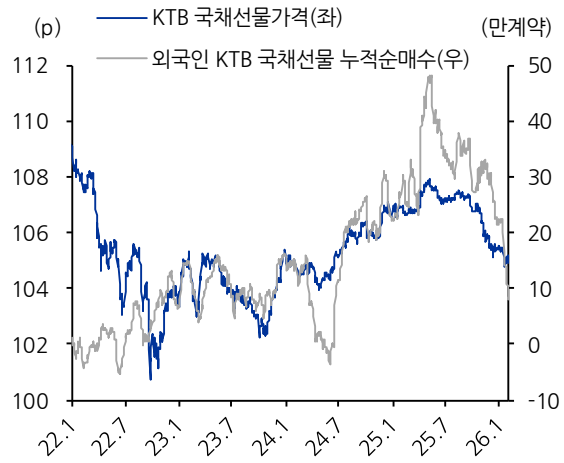
유진투자증권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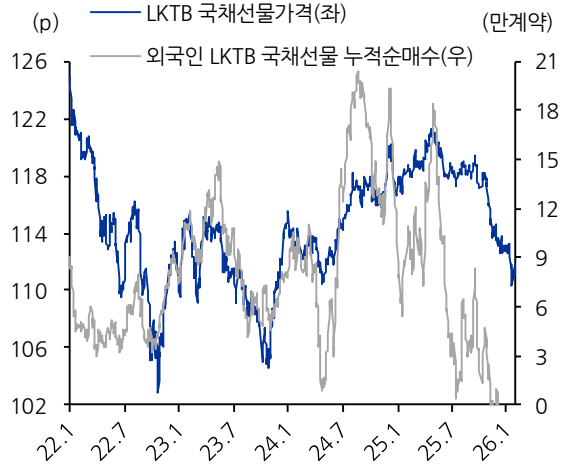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/30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138%	3.2	0.1	18.5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607%	5.0	1.7	22.2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46.9	45.1	45.3	43.2
	3년 국채 선물(KTB)	104.94	-11.0	2.0	-50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0.95	-40.0	-9.0	-197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523%	-3.8	-7.1	5.1
	미국채 10년물	4.237%	0.3	1.1	6.9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71.4	67.3	63.2	69.6
	독일국채 10년물	2.842%	0.4	-6.2	-1.3
	호주국채 10년물	4.796%	-3.1	1.2	4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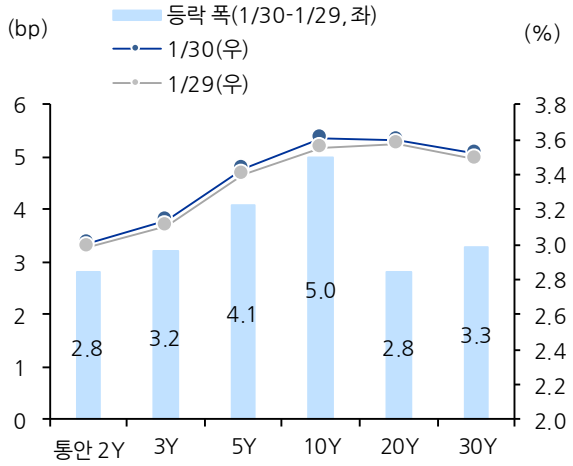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한은 총재 발언 및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에 영향.
- 이창용 한은 총재, 홍콩 컨퍼런스에서 금리정책의 한계와 재정정책 및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경기가 1.8% 성장률 이상의 상방 리스크가 있다고 발언. 이에 금리 전구간 상승.
- 블룸버그를 비롯한 주요 외신, 차기 연준 의장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지명될 것이라고 언급. 직전까지 부상했던 릭 리더, 케빈 해싯에 비해 덜 완화적인 인사라는 점에서 아시아 장에서 미국 금리 상승 및 국내 금리도 상승세 유지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, 장단기 금리 방향성 엇갈리며 커브 스티프닝 마감.
-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아시아 장부터 장기금리 상승 시작.
- 과거 QE 반대 이력과 최근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도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축소해야한다(QT)는 주장이 알려지며 QT 재개 가능성 반영하면서 장기금리 상승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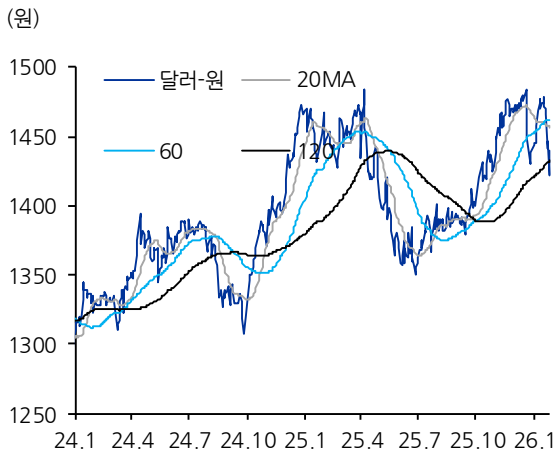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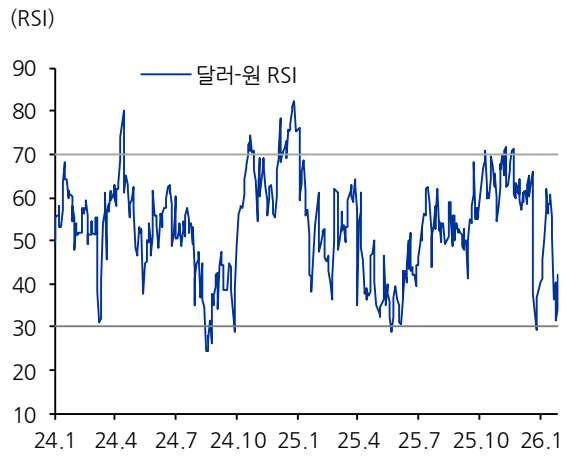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/30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39.50	0.9%	-1.8%	0.0%
	달러지수	97.13	1.0%	-0.4%	-1.2%
	달러/유로	1.185	-0.9%	0.3%	0.9%
	위안/달러(역외)	6.96	0.2%	0.1%	-0.3%
	엔/달러	154.76	1.1%	-0.7%	-1.2%
	달러/파운드	1.368	-0.9%	0.3%	1.6%
	헤알/달러	5.26	1.4%	-0.5%	-4.6%
상품	WTI 근월물($)	65.21	-0.3%	6.8%	13.6%
	금 현물($)	4,859.05	-10.0%	-2.5%	12.5%
	비트코인($)	83,005.00	-1.2%	-7.3%	-5.6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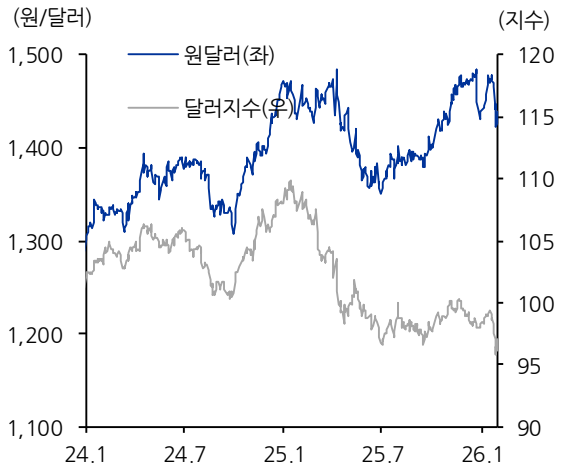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일 대비 +13.20원 상승한 1,439.50원에 마감. 야간거래는 1,443.50원 마감.
- 달러-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임박한 가운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.
- 후보군 중 상대적으로 매파 성향으로 평가되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달러 인덱스는 96후반~97선으로 올라섰고, 달러-엔도 154엔 안팎까지 반등함.
-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간 점도 달러-원 상방으로 작용했음. 워시 전 이사 지명 확정 이후 뉴욕장에서는 달러-원도 1,446원대까지 추가 상승세를 보였음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급등하며 97선을 회복.
- 달러는 매파 성향으로 평가되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지명 소식과 12월 생산자물가지수(PPI)가 전월 대비 +0.5%로 시장 예상(+0.2%)을 크게 웃돌며 관세에 따른 비용 전가 우려가 부각된 점에 강세를 보임.
- 은선물 가격 하락은 CME가 금/은/팔라듐 등 원자재 상품에 대한 증거금을 일제히 상향하면서 46년 만에 최대 하락을 기록함.
- 금일 RBA 통화정책회의 개최 예정.